⑤화두 참구법

# 분별심 버리고 '물음표' 들어라

화두란 선(禪)의 진리를 푸는 열쇠이며 암호입니다. 암호를 풀자면 방법과 공식을 알아야 합니다. 공식도 모르고 풀려고 하는 것은 맨손으로 토끼를 잡겠다고 온 산을 휘젓고 다니는 격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화두는 구조적으로 의문하는 구조로 짜여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참구하는 방법 역시 의문으로부터 출발합니다.

화두를 참구하는 가장 올바른 방법은 한마디로 일체의 사량 분별심과 알음알이(분석), 또는 논리적 학문적 접근을 중지하고 오로지 "왜 '무'일까?" "왜 '간시궐'일까?" 하고 의문만 제기하라는 것입니다. 오로지 물음표(?)를 던져서 "어째서?" 하고 탐구만할 뿐, 절대 갖가지로 머리를 굴려서 "왜 조주선사가 '무'라고 했을까?" "왜 '간시궐'이라고 했을까?" 하고 분석하거나 분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분석, 분별하는 것은 올바른 화두 참구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화두선(간화선)의 종장(宗匠) 대혜 스님(大慧, 1088-1163)은 "이 무자야말로 모든 번뇌 망념과 삿된 알음알이(惡知), 삿된 깨달음(惡覺)을 타파하는 무기(武器)이며 지혜의 칼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직 머리에 이 '무' 한 글자만 철저하게 각인시켜 둔다면 번뇌 망상이 소멸되어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자화두'를 대표적으로 거론하고 있지만, 모든 화두의 참구법도 무자화두와 똑같습니다.

화두를 분별의식이나 분석적 사고로 참구하면 안 된다고 하는 첫째 이유는, 언어적, 논리적, 학문적으로 분석, 분별하게 되면, 거기에 풍덩 빠져서 더 이상 실제적인 탐구는 하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관념적인 이해, 지적(知的)인 이해(알음알이)로 다 알았다고 판단하여 더 이상 수행을 하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정보화시대에서 분석력은 대단히 중요하지만 화두 참구에서는 '최대의 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설사 분별적으로 화두를 이해했다고 해도 그것은 관념적인 이해, 지적인 이해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또 화두를 분석, 분별하게 되면 그 화두는 죽은 화두(=死句)가 되어 더 이상 참구(탐구)해야 할 가치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화두의 생명은 무엇보다도 권위와 절대성이 밑바탕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화두를 분석, 분별, 해체하게 되면 그것은 이미 그 자체가 권위와 절대성을 훼손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궤변 같은 화두에 절대성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그 화두는 화두로서 생명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최소한 그 사람에게 그 화두는 매력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무엇이든 가치란 해체하지 않았을 때, 소유하지 않았을 때 극대화되는 것이지, 해체하거나 소유해 버리면 반감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컨대 '무'나 '간시궐' '마삼근'에 대해서, "정말 그 뜻이 무얼까?" "왜 마삼근이라고 했을까" 하고 깊이 탐구해 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오늘 저의 이 글을 읽고 비로소 좀 이해했다면 그것은 일시적인 이해, 관념적인 이해입니다. "어, 그런 말이로구나" 하는 정도에서 끝난 것입니다. 주먹을 불끈 쥐면서 "그래그래 맞어. 바로 그 말이었어. 정말 그것이었어"가 아닌 것입니다. 이것이 관념적인 이해와 체험적 사유(수행)의 차이입니다.

화두를 참구할 적엔 항상 화두가 머리속에서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오매불망, 일구월심이 되어 화두에 몰입(삼매)해야 합니다. 화두를 깊이 응시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또 마음을 너무 조급하게 가져서도 안 되고 느슨하게 가져서도 안 됩니다. 조급증을 가지면 얼굴이 달아오르고 머리가 아픈 상기병(만성두통)이 생기게 되고, 느슨하면 화두를 놓치게 됩니다. 또한 아무런 목적의식(화두참구)이 없는 상태, 멍청한 상태(無記空)로 앉아 있어서도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머리속에서 화두를 분실하지 말아야 합니다.

좌선을 하면서 딴 생각을 해도 안 되고 졸음에 빠져서도 안 됩니다. 그것은 앉아서 망상을 피우는 것이고 조는 것이지 좌선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멍한 상태, 비몽사몽 같은 상태를 '혼침(昏沈)'이라고 하고, 마음이 들떠 있는 것, 끝없이 잡념이 떠오르는 것을 '도거(掉擧)'라고 하는데, 이 역시 참선에서는 요주의 사항입니다. 혼침과 도거에 빠지는 것은 선이 아니므로 매정하게 몰아내야 합니다. 사실 머리속에서 화두만 분실하지 않으면 잡념 같은 것은 두려워할 것도 없습니다.

모든 수행자들이 처음에는 다 시행착오를 거듭합니다. 지적 소양이 있는 사람은 머리를 굴려서 분별, 분석하고, 좀 멍청한 사람은 목적의식이 없고, 의지가 박약한 사람은 일찍 체념하거나 포기합니다. 또 관절염이나 위장병, 만성적 두통(상기병) 등 신병(身病)이 있는 사람은 중도에 하차하는 경우도 있고, 환영의 올가미에 걸려서 수없는 세월 동안 고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관건은 얼마만치 시행착오를 줄이고 곧장 깨달음의 길로 들어가느냐? 그것입니다. 노력하는 자에겐 반드시 좋은 결과가 옵니다. 이것은 불변의 성공 철학입니다. ■**윤창화** 민족사 대표

> 화두 참구의 최대 적은 권위·절대성 훼손시키는 분석적 사고
> 분석·탐구로 인해 관념적 이해 그쳐…화두로서의 생명력 상실

## 신행게시판

●**백담사 설맞이 템플스테이**=인제 백담사가 설맞이 템플스테이를 마련한다. 2월 6~8일 진행되는 설맞이 템플스테이는 조상님께 차례를 올리고 성불도놀이, 참선, 요가, 차명상, 차훈명상 염주만들기, 봉정암 산행 등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033)462-6969

●**적멸보궁 봉정암 정초기도**=인제 봉정암에서 새해를 맞아 정초 21일 기도를 봉행한다. 부처님뇌사리보탑전에서 열리는 이번 정초 기도는 2월 9일 오전 10시에 입재해 15일 오전 10시 회향할 예정이다. 정초 기도는 나와 이웃, 그리고 모든 중생을 향한 지극정성의 마음을 모으는 것이라고 봉정암 측은 설명한다. (033)632-5933

●**강원불교대학 19기 모집**=춘천 석왕사가 강원불교대학 19기생 모집에 나섰다. 1년 과정인 기초반 경전반 문예반을 모집하며 학력 및 나이 제한은 없다. 입학원서 1통, 반명함판 사진 2매를 제출하면 되며 3월 15일 오전 11시 개강한다. (033)251-5040

●**관오불교복지대학 모집**=대구 관오사의 관오불교복지대학이 수강생을 모집한다. 관오불교복지대학은 불교교육, 복지상담의 교과 과정이 개설돼 있으며 전문대학원반으로 경전(금강경 화엄경 법화경 지장경 아미타경)공부반이 운영되고 있다. 3월 8일 오후 1시 입학식이 열릴 관오불교복지대학은 7일까지 선착순 마감한다. (053)472-0108

●**정월 방생법회 및 삼사순례**=대구 은적사가 2월 18일 정초 삼사 성지순례를 봉행한다. 법주사, 공림사, 각연사를 돌아볼 이날 삼사순례에서 방생법회도 같이 열린다. (053)653-1572

●**영주암 새해 방생법회**=부산 영주암에서 해상선상 방생법회를 개최한다. 2월 15일 오후 2시 크루즈를 승선해 동백섬 오륙도 광안대교를 거치며 방생법회를 진행한다. 2월 11일까지 접수받으며 선착순 280명만 동참이 가능하다. 동참금은 3만원. 9~15일은 정초 7일 기도도 봉행한다. (051)754-2210

●**영묘사 정초기도**=울주 영묘사가 정초 7일 철야기도를 봉행한다. 2월 9일 밤 10시에 입재해 <천수경> 독경으로 시작하는 철야기도는 밤 12시부터 관세음보살 정근기도를, 새벽 1시부터 <법화경> 기도 및 법화삼매 예참으로 진행된다. 동참금은 3만원. 향, 초, 공양미 등을 준비하면 된다. (052)238-9982


아봐타 코스
나를 찾아 떠나는 9일간의 내면여행!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 있는가?
밝은길 아봐타 센터
전화주시는 분께는 안내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지금이야 말로 당신이 큰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
일생동안 기다려왔던 바로 그 시간입니다
당신의 소원을 이루십시오
-아봐타 마스터 김희균
●전화문의 상담 환영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45-3
전화 010-6230-2113 · ☎ 02)512-2736
http://www.avatarcenter.co.kr
E-mail: heegyun@avatar21.com


깨달은 여인들의 수행법

# '실상무상' 깨닫고 대열반 경지에

<實相無相>

## ❺ 유마거사의 딸 월상녀

사리불이 어느 날 성으로 들어가다 유마 거사(維摩詰)의 딸인 월상녀(月上女)가 성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 물었다.

"어디를 가는가?"

월상녀가 대답했다.

"나는 사리불님처럼 그렇게 갑니다."

"나는 성으로 들어가고 그대는 성에서 나오는데, 어째서 나처럼 간다고 하는고?"

"부처님의 제자들은 어디에 머무십니까?"

"부처님의 제자들은 큰 열반에 머문다."

이에 월상녀가 "부처님의 제자들이 열반에 머물렀으므로 나도 사리불님처럼 그렇게 갑니다"라고 하였다. 이 문답은 <선문염송> 제71칙에 나오는 공안이다. <불설월상녀경>에 따르면, 부처님이 비야리국 대수림(大樹林)의 초모(草茅)정사에 머무를 때, 성안의 이차가(離車家)에 비마라힐(淩摩羅詰: 유마힐)이라는 큰 부자가 있었다. 그의 아내는 무구(無垢)라고 하였는데, 그들 부부 사이에 딸이 태어났다. 딸이 태어날 때 몸에서 묘한 광명이 솟아 온 집안을 비추었기 때문에 월상(月上)이라고 이름 하였다. 전생의 공덕으로 좋은 가문에 태어난 월상녀가 부처님께 출가하는 과정에, 사리불을 비롯한 여러 보살들과 대승의 교리를 문답으로 주고받는 장면이 경전과 공안집에 묘사되어 있다.

이 화두의 대의는 월상녀는 큰 보살이어서 대열반에 머물렀기에 '들고 남(出入)'과 '오고 감(去來)'이 없어졌고, 사리불은 성문(聲聞)인지라 '출입'과 '여기와 저기(彼此)'가 없어지지 않았음을 암시하고 있다.

원오극근 선사는 이 공안에 대해 "머물러도 머무는 바가 없고, 다녀도 다니는 바가 없으며, 보아도 보는 바가 없고, 써도 쓰는 바가 없다. 여러분의 발꿈치 밑이 허공같이 넓어 열 개의 해가 함께 비치는 것같이 닿는 곳마다 광채가 찬란하다. 이를 안다면 월상녀와 더불어 무생법인(無生法忍:나고 죽음이 없는 마음자리)을 함께 증득해서 물러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였다. 월상녀와 역대 조사가 공감한 들고 남이 같은 길(道), 여래의 큰 해탈에 머물기 위해서는 본래부터 맑은 본체의 근원과 하나 되어야 한다. 즉 제법(諸法)의 실상(實相)을 깨달아야 한다. 그런데 이 제법의 '실상은 상이 없어(實相無相)' 공(空)이라 한다. <반야심경>의 설명이다.

"모든 법의 공한 모양은(諸法空相) 나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으며(不生不滅), 더럽지도 않고 깨끗하지도 않으며(不垢不淨), 늘지도 않고 줄지도 않느니라(不增不減)."

즉 제법의 실상은 불생불멸하고 무시무종(無始無終)한 진여(眞如)이자 불성인 것이다. 본래 있는 그대로의 진리인 진여성은 공성(空性)이자 <열반경>의 대아(大我)이자 우주적인 마음, 대승심(大乘心), 대심(大心), 일심(一心)인 것이다.

부처님은 <잡아함경>에서 "모든 행은 무상(諸行無常)하고, 모든 법은 무아(諸法無我)요, 열반은 적정하다(涅槃寂靜)"고 설하셨다. 또한 "무상하고 무아이며 일체 어디에도 머물 수 없고 이름 할 수 없으므로 공이라 이름 하나니, 하나의 근원 속에 일체의 모든 것이 실체가 없으므로 이름 하여 일체개공(一切皆空)이라네"라고 설하셨다. 즉 월성녀는 일체개공의 도리와 제행무상, 제법무아, 열반적정의 삼법인(三法印)을 깨달았음을 알 수 있다.

월성녀와 같이 불교의 근본진리인 삼법인을 깨닫기 위해서는 공관(空觀)을 닦아야 한다. 이에 대해 <금강경>은 "일체 현상계의 모든 생멸법은 꿈과 같고 환상과 같고, 물거품 · 그림자 같으며, 이슬 · 번개와도 같으니, 응당 이와 같이 관할지니라"는 관법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부처님은 "응당 색(물질)에 머물러서 마음을 내지 말며, 응당 소리 · 냄새 · 맛 · 감촉 · 법(대상) 등에 머물러서 마음을 내지 말 것이요, 응당 머문 바 없이 그 마음을 낼지니라(應無所主 而生其心)"라고 자상히 일러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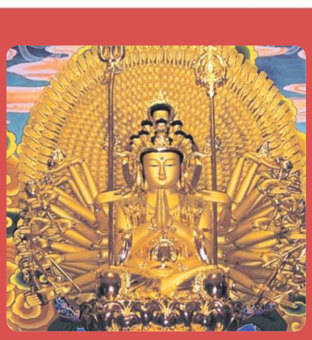
이러한 공관법은 모든 수행의 기본에 해당된다. 그 어떤 수행법을 닦든 일체를 '토끼뿔' '거북털'로 관하고, 닦는 바 없이 닦아야 함을 잊어서는 안 된다. **김성우 객원기자**

> 出入·去來의 경계가 사라진 경지
> '삼법인' 깨닫기 위해 공관 닦아야


성불조각원
www.sungbul.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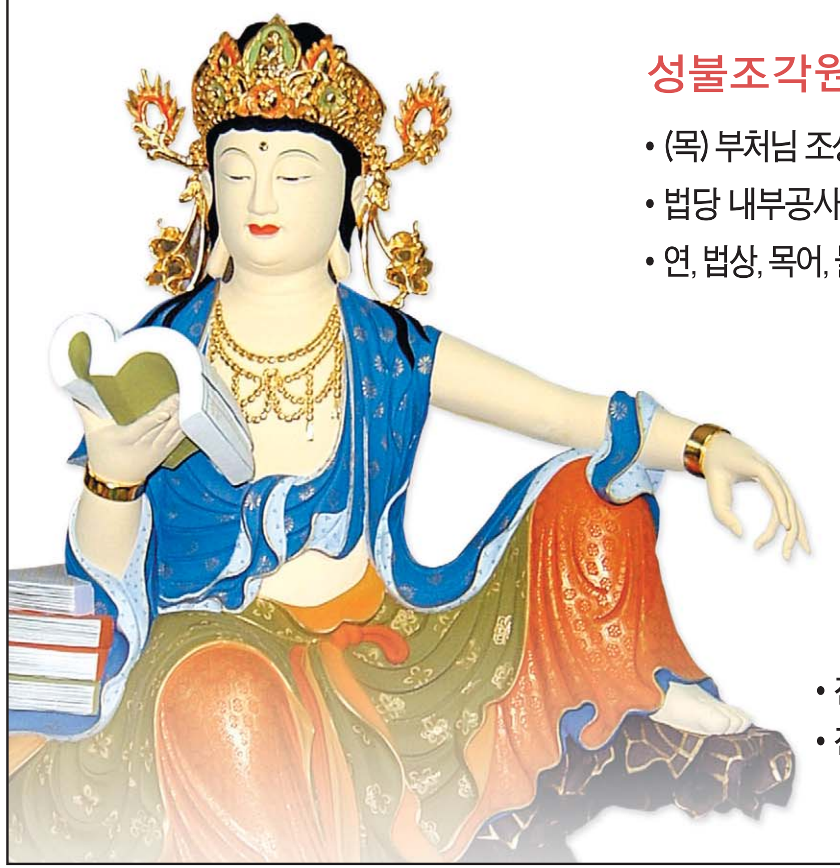
귀의 삼보 하옵고
저희 성불조각원은 불교 목공예를 전문으로하여 저희가 생산하는 모든 작품에는 작은 못하나 사용치 않고 짜맞춤 공법으로 제작하고 있습니다. 많은 시간과 수작업을 필요로 하지만 작은 경상 하나라도 대를 이어 물려 줄 수 있는 그런 작품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초심을 잃지 않도록 여러 대덕스님들의 조언과 질책을 부탁 드립니다.

서울 송림원 석가모니부처님


신흥사 천수천안 관세음보살

오대산 상원사 500나한

온양 수암사 지장 목탱화



성불조각원이 하는일
• (목) 부처님 조성, 목탱화, 사천왕, 나한...
• 법당 내부공사, 조각문, 현판, 용두...
• 연, 법상, 목어, 불명페, 기타 모든 작품 주문 제작 합니다.

※ 작은 일이라도 불심으로
정성껏 상담합니다.

• 전시장 : 강원도 춘천시 칠전동 594-2
• 전 화 : 033)263-1102 / 017-379-0590
경남지사 011-588-8317